황영식, 베르사유 궁전서 '필마단기'로 세계의 벽 넘는다

2024 파리 올림픽 주목 이 종목

승마

마장마술 개인전 유일 출전
장애물비월 등 3종목 6개 金
"유럽과 격차 줄이는게 목표"

올림픽 종목 가운데 동물과 함께 호흡하는 특별한 종목인 승마는 전통도 유구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1900년 제2회 올림픽 때부터 승마 경기가 열렸다.

그로부터 124년이 흐른 2024년에도 승마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1924년 대회에 이어 100년 만이자 역대 세 번째로 파리에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에서 승마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대회 장소다.

파리 올림픽 승마 경기는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개최된다.

수도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0㎞ 가량 떨어진 근교 지역 베르사유시(市)에 자리한 이 궁전은 '태양왕' 루이 14세로 대표되는 17세기 프랑스 절대 왕정의 상징이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사크레쾨르 성당 등과 함께 파리 인근의 대표적 명소로 꼽히는 베르사유 궁전은 계절과 시기를 막론하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화려하기로 이름난 정원의 중심부인 에투알 루아얄 광장이 승마와 근대 5종을 위한 야외 경기장의 자리다.

1928년 제9회 암스테르담 올림픽부터 마장마술·장애물비월·종합마술의 개인·단체전 체제로 열린 승마 종목에는 총 6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동물과 호흡을 맞출 뿐 아니라 남자부와 여자부 구분 없이 동시에 경쟁하는 게 승마 종목의 특징이다.

마장마술은 기수와 말이 길이 60m, 너비 20m의 경기장을 정해진 경로에 따라가면서 얼마나 조화를 이뤄내는지 평가하는 경기다.

서로 다른 곳에 자리 잡은 심판 5명이 기수와 말의 연기를 평가한다.

기수와 말의 교감과 조화가 특히 중요한 종목이다. 정해진 동작을 더 절도 있고 우아하게 수행하는 말과 기수에게 높은 점수가 주어지는 식이다.

장애물비월은 12~15개의 장애물을 통과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경로를 완주해야 하는 경기다.

말이 기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장애물 통과를 거부하거나 주행 도중 장애물에 걸려 기수가 낙마하면 감점 또는 실격된다.

종합마술은 3일에 걸쳐 마장마술, 크로스컨트리, 장애물비월을 모두 하는 종목이다. 이 중 크로스컨트리에선 오솔길, 늪지, 도로 등으로 이뤄진 약 30㎞의 코스를 주행한다.

승마 국가대표 황영식. 〈승마협회 제공〉

이달 27일부터 시작하는 승마 종목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는 황영식(대한승마협회)뿐이다.

마장마술 개인전에 나서는 황영식은 오는 30일부터 베르사유 궁전의 에투알 루아얄 광장에서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승마의 본산이자 중심은 유럽이다. 한국 승마는 아직 올림픽 무대에서 한 번도 메달을 따지 못했다.

아시안게임에서는 44개의 메달(금 15·은 13·동 6)을 획득했지만, 올림픽은 출전조차 쉽지 않았다.

베르사유 궁전에 마련된 승마 경기장. /연합뉴스

개최국으로 나선 1988 서울 올림픽 때 마장마술 개인전(서정균)에서 10위, 종합마술 단체전에서 7위에 오른 게 역대 최고 순위다.

최근엔 이 정도의 성적도 내지 못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때 최준상이 경기를 마친 선수 중 최하위인 46위에 그쳤고, 2012 런던 올림픽에는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가 없었다.

이후 2016 리우데자네이루, 2020 도쿄 올림픽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이 유일하게 마장마술 개인전 출전권을 획득했다.

리우 대회 때 1차 예선까지 치른 뒤 조모상으로 중도 귀국했던 김 본부장은 도쿄 대회에서도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다.

도쿄 올림픽 미출전의 아픔을 기억하는 황영식은 파리 대회를 앞두고 의욕이 넘친다.

그는 "늦어지긴 했지만 나도 이번에 올림픽 티켓을 땄다"며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통해 독일이나 유럽과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봉주르 파리' 한국 선수단 본단, 결전지 입성

21개 종목 260명 '17일 열전'
48년 만에 가장 적은 선수단
"금 5개 이상 종합 15위 입성"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단이 결전지 프랑스 파리 땅을 밟았다.

대한체육회 본부 임원(18명)과 펜싱(20명), 탁구(10명) 선수단을 포함한 48명의 본단은 20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다.

본단 기수로 선정된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 맏형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을 필두로 한 이들은 한국시간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14시간 넘는 비행 끝에 파리에 입성했다.

26일 파리 센강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11일까지 이어지는 파리 올림픽엔 총 21개 종목 260명(선수 143명·경기 임원 90명·본부 임원 27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가한다.

단체 구기종목의 부진 등 여파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래 48년 만에 가장 적은 선수단이 나서게 된 우리나라는 금메달 5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순위 15위 이내 입상을 목표로 두고 있다.

선수단이 줄어들며 성적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양궁과 펜싱, 태권도, 수영, 배드민턴 등이 메달 레이스를 이끌어 줄 거로 기대되는 종목들이다.

12일 배드민턴, 사격 등을 시작으로 종목별로 속속 파리에 들어오고 있는 선수단의 상당수는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하계 올림픽 사전캠프인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에서 담금질하고 있다.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주장 구본길이 20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공항 2터미널에 도착해 태극기를 앞세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 인근 퐁텐블로 프랑스국가방위스포츠센터(CNSD)에 차려진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엔 이미 배드민턴, 수영 경영 대표팀 등 130여 명이 지내고 있으며, 이날 도착한 펜싱 대표팀도 합류한다.

탁구 대표팀은 선수촌에 입촌해 현지 적응에 들어간다.

이후에도 아티스틱 스위밍(22일), 경보(24일), 다이빙·태권도·승마(이상 25일) 선수단이 차례로 파리로 향할 예정이다.

태극전사들은 개회식에 앞서 25일부터 경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 양궁 대표팀이 랭킹 라운드에 나서며, 단체 구기종목 중 유일하게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독일과 대회 첫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우상혁·김서영, 26일 개회식 기수 맡는다

25일부터 양궁 랭킹 라운드
여자 핸드볼, 독일과 첫 경기

우상혁

김서영

2024 파리 올림픽에 출격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 가운데 개회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앞장설 선수는 우상혁(욱상·용인시청)과 김서영(수영·경북도청)으로 결정됐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1일 프랑스 파리 외곽 퐁텐블로의 프랑스국가방위스포츠센터(CNSD)에 차려진 대한민국 선수단 사전 캠프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 공개 행사를 통해 취재진과 만나 "우상혁과 김서영이 개회식 기수를 맡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26일 개회식 이후 바로 경기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우상혁과 김서영 오는 26일 파리 센강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전 세계 관중과 시청자들에게 당당한 발걸음을 보여주게 됐다.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배구 여제' 김연경(은퇴)과 황선우가 공동 기수로 개회식을 책임졌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는 펜싱 남자 사브르에 출격하는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수를 맡았다. 2012 런던 올림픽 때는 남자 핸드볼의 윤경신(은퇴)이 나섰다.

남자 선수 가운데 주장은 펜싱 사브르 대표팀의 베테랑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여자 주장은 김소영(인천국제공항)이 선정됐다.

지도자 가운데 총감독 자리는 김학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에게 돌아갔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11일까지 이어지는 파리 올림픽엔 총 21개 종목 260명(선수 143명·경기 임원 90명·본부 임원 27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가한다.

단체 구기종목의 부진 등 여파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래 48년 만에 가장 적은 선수단이 나서게 된 우리나라는 금메달 5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순위 15위 이내 입상을 목표로 두고 있다.

'현지 적응'을 선전의 핵심 요소로 본 체육회는 파리 남동부 근교 도시 퐁텐블로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환경을 최대한 구현한 사전 캠프를 마련했다.

태극전사들은 개회식에 앞서 25일부터 경기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양궁 대표팀이 랭킹 라운드에 나서며, 단체 구기종목 중 유일하게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독일과 대회 첫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KIA불펜 '신·자 모드'로 승리 지킨다

〈신중함·자신감〉

13점 리드 못지킨 '대참사' 후
신중함 더하며 자신감 키워
'0.2이닝 3실점' 김도현
한화전 5이닝 1실점 선발승

'각성의 날' 그 이후 KIA 타이거즈가 신중함과 자신감으로 승리의 답을 찾고 있다.

6월 25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사직 원정경기는 올 시즌 KIA에 잊지 못할 경기 중 하나로 남을 전망이다. 이날 KIA는 롯데 선발 나균안을 상대로 시작부터 뜨거운 공세를 펼치면서 4회초 14-1의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경기는 12회 연장 혈투 끝에 15-15 무승부로 끝났다.

선발로 나왔던 제임스 네일이 5이닝 9실점(4자책점)으로 흔들렸고, 김대유-김도현〈사진〉-곽도규-김사윤-장현식-최지민이 연달아 마운드에 올랐지만 끝내 13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이후 KIA는 마무리 정해영의 부상과 필승조 최지민의 부진까지 겹치면서 불펜 위기를 맞았다.

6월 25일 롯데전은 KIA 불펜진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 날이 됐다.

이날 0.2이닝 3실점을 기록했던 김도현은 롯데전 이후로 '신중함'을 더했다.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미숙했다. 롯데전 이후 그런 게 많이 와 닿았다. 공 하나하나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실패를 교훈 삼은 김도현은 지난 19일 한화 원정에서 시즌 첫 선발로 나서 5이닝 1실점(비자책점)의 호투로 깜짝 승리를 거뒀다.

불펜의 핵심인 임기영도 '롯데전'을 이야기한다.

임기영은 "롯데전에서 우리 불펜들이 야수들에게 많이 미안했다. 나오면 안 되는 경기다. 앞으로도 그런 게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경기를 줄여야 한다"며 "한번 그렇게 뒤집히니까 선수들, 투수들도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 하나하나에 신중함을 더한 투수들이지만 마운드에서는 공격적인 승부도 필요하다.

임기영은 "최근 몇 경기 타자들한테 미안한 게 있었다. 타자들이 그렇게 뽑아줬는데 우리가 점수를 많이 줬다. 잘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기도 나왔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공격적인 승부를 위한 답은 결국 신중한 '자신감'이 될 전망이다.

임기영도 자신감을 채워가는 중이다. 옆구리 부상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던 임기영은 시즌 중반 선발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불펜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임기영은 "캠프 때부터 선발 준비를 한 게 아니라서 급하게 몸을 만들다 보니까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며 "좋은 것을 계속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기복이 있을 수 있어서 이를 유지해야 한다. 투수 코치님, 수석코치님과 변화구, 구질 이런 것 피칭할 때 많이 연습하고 있다. 그게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또 "계속 경기력이 안 좋으니까 부담이 있었다. 마운드에 올라가는 게 팀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다. 결국 자신감이다. 경기력이 계속 좋게 나오면 자신감이 붙는다. 결과가 안 좋으면 더 안 맞으려고 하다가 안 좋게 나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불펜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말했다.

임기영은 "위기라는 건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결국 다른 선수들이 메꿔주는 것도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하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불펜의 '자신감'을 강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